

기재부 “경기침체상황 아냐”

“수출·내수 나아지고 있어”... “지표 부진보다 무서운 것은 소비심리 위축”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은 위기 혹은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개소세 인하 종료 등의 요인으로 내수가 조정받고 있던 하지만 인화 연장으로 다시 승용차 판매가 늘고 있고 수출도 감소폭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를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수출(잠정)은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364억2000만 달러를 나

타했다. 유가 하락에 지속, 선박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석유류 제외시, 원화기준 환산시 수출도 감소폭이 축소됐다.

1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0.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는 증가했지만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구재가 13.9%나 떨어져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합인점 매출액이 이른 설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9.0%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1월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0.8%→1.3%)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한과·복숭 등 기상악화, 명절 대형마트 할인 종료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2.4%→5.6%)됐다.

1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줄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출판·영상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이 줄어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1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보다 6.0%나 떨어졌고 건설투자는 건축공사가 늘면서 1.3% 증가했다.

김병환 종합정책과장은 “정부가 너무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지만 지표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보기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소비절벽 우려의 경우 개소세 종료 인화로 승용차가 1월에 덜 팔렸지만 2월에는 보완이 되고 있다”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점인데 심리가 얼어붙으면 결국 실물 영향이 주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전주 롯데백 ‘딸기 산지 직송전’ 11~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1~17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딸기 산지 직송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농산물은 전북지역 딸기 주 생산지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딸기는 설향딸기 500g/통 5,800원, 1kg/통 1만2,800원에 판매하고, 시식행사도 더불어 주말 3일 줄서기

이벤트로 일 50명에게 500g씩을 3,000원에 한정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식품 감장수와 트러더는 “새봄을 맞아 고객의 입맛을 돋우고자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산지작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작년 건축 인허가 전년비 38.1% ↑

착공면적 전년비 38.3%증가

작년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2억㎡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38.1% 증가한 1억9065만2000㎡, 동수는 12.3% 늘어난 28만5651동에 달했다고 밝혔다.

착공 면적은 38.3% 늘어난 1억 5374만3000㎡, 동수는 13.8% 증가한 22만6652동으로 나타났다.

준공 면적은 7.3% 감소한 1억2148만1000㎡, 동수는 2.2% 증가한 20만 3394동에 달했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47.9%, 착공은 50.3%, 준공은 0.5% 각각 증가했다.

주거유형별 허가면적은 아파트가 58.1%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다세대주택(49.8%), 단독주택(20.5%), 다가구주택(11.9%) 등의 순이었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허가면적도 전년보다 83.9%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68.3%), 전라북도(384.5%), 경상북도(163.7%)의 허가 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파트 허가는 전년보다 96.9% 착공은 172% 각각 늘었다.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

(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8%인 11만9027동, 100~200㎡ 건축물이 4만7809동(18.0%), 300~500㎡ 건축물이 3만5633동(13.4%) 순이었다.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8%인 10만1553동, 100~200㎡ 건축물이 3만 8933동(17.2%), 300~500㎡ 건축물이 3만2169동(14.2%) 순으로 집계됐다.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7%인 8만2803동, 100~200㎡ 건축물이 3만 7797동(18.6%), 300~500㎡ 건축물이 3만1590동(15.5%)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형태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6.8%인 5101만8000㎡, 법인이 9557만1000㎡(50.1%), 공공이 1246만8000㎡(6.9%)이다.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7.8%인 4269만16000㎡, 법인이 9005만 3000㎡(58.6%), 공공이 752만7000㎡(4.9%)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0%인 3888만4000㎡, 법인이 5843만3000㎡(48.1%), 공공이 1024만4000㎡(8.4%)이다.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 행정시스템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시민단체, 개소세 환급거부 수입차업체 고발

BMW·메르세데스벤츠 등 6개 수입차업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6개 수입차(개소세) 인화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법조계와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9일 오전 11시께 BMW, 벤츠,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수입차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장주 회장은 “1월 판매된 수입차들은 지난해 통관한 차가 많다”면서 “정부에 이미 인화분 환급을 납부하고도 마치 개소세 환인 혜택을 수입차 업체에서 환급해주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명백

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월 통관된 차의 경우 사기판매는 아니지만, 개소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은 마땅치”라고 부연했다.

그는 “수입차 세금 부과 방식이 국산차와 형편성이 맞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수입 통관 시에는 관세만 부과하고 판매시점에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과세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소세 인화분 환급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때 따른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화분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반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화분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월 중 이미 개소세 인화분에 상응하는 환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입차들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 연장 환인 등의 명목으로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벤츠는 최근 입장을 바꿔 개소세 인화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인진수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표준협회와 ‘전기안전지침 표준등록’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5층 창조실에서 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와 ‘전기안전지침 표준등록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행사에서 양 기관은 △전

기산업 분야 글로벌 표준화 동향 분석, △국내·외 표준의 보급과 교육사업, △전기안전 기술·품질의 향상을 위한 표준개발 등에 있어 상호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상권 사장은 “ICT 기반의 신기술이 기존 기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전기안전관리 기준이 글로벌 선진기준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신광영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어난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